

자격증 불법 대어 단속 강화

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격증 불법 대어 문제를 단속하는 사업장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 대어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아가 조사하는 권한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어·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법 대어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불법 대어가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건수는 지난 2005년 112건에서 지난해 314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

증을 대어해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어는 국가기술자격 공신력을 저하하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어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와 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의 분야

자격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해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이 늘어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상호인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자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간 상호인정 대상을 타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경력기술사까지 확대했다.

초·중학생 42% “일본어 배울래요”

제2외국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공개

노벨과 재미와 교수닷컴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호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두 회사의 온라인 학습 사이트 노벨사이어(www.nobelsang.com)를 통해 금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2개의 설문조사 14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1,10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초·중학생의 10명 중 4명은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으며, 가장 배우고 싶은 제2외국어로 일본어(42%)를 꼽았다.

어를 공부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공부하고 있다"라는 대답은 총 응답자 1,101명 중 439명 즉 40%, "공부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답은 662명으로 60%에 달했다.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초등학생의 경우, "제2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생 응답자 721명 중 274명으로 38%에 달했고 중학생의 경우, "제2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응답이 중학생 응답자 380명 중 165명으로 43%에 달했다. 이로 보아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제2외국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이외에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일본어'라는 대답은 총 응답자 1,101명 중 462명으로 42%에 달해 가장 많았다. '중국어'는 308명으로 28%, '불어'는 121명으로 11%, '스페인어'는 112명으로 10%, '독일어'는 98명으로 9%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응답자의 36%, 중학생은 중학생 응답자의 53%로 나타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일본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호 기자 kkh@eduyonhap.com

1면에 이어서...

이에 김 교수는 스핀 동적 거동을 이용한 정보저장 및 처리용 신개념 스핀 소재 및 소자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내·외 14편의 특허 등록 및 출원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물리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저널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5편, 응용물리분야의 최고 권위 저널인 어플라이드 피지컬 레터스(Applied Physics Letters)에 14편을 포함하여 최상위 SCI 저널에 지난 3년간 30여 편 발표되었다.

특히, 자연과학 및 재료과학분야의 세계최고 권위저널인 네이처(Nature)지에 주목받은 연구(Research Highlights), 어플라이드 피지컬 레터에 네 차례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그 연구결과의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 교수는 "연구단이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지원을 받아 나노 스핀 동역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탁월한 연구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여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본사사령	
命	
포천주재기자 이종진	
2009년 6월 8일자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균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FAX 032-433-5633 호남본부 062-653-1996
포천지사 031-542-8353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천다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이디어로 시원해지다”

‘제4회 대학생 물사랑 홍보 콘테스트’ 개최

“콘테스트 통해 물사랑 배워요” 지난 6월 3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환경부(장관 이만희)가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오세훈)와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김재범)가 주관한 ‘제4회 대학생 물사랑 홍보 콘테스트’ 본선이 개최됐다.

지난 5월11-21일까지 10일 동안 접수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67개 대학에서 154팀 총 530명이 응모해, 15개 팀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 팀들은 이날 장장 5시간에 걸쳐 각자 준비해온 물 절약 대국민 홍보전략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하고, 사전에 제작한 라디오 광고를 시연하며 국민들을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동참시키기 위한 참신한 홍보전략 및 방안을 제시했다.

본선 직후 치러진 시상식에서는 한세대학교 ‘쑤스포라이트’팀과 ‘물지킴이 수호천사’팀이 최우수상을, ‘물이 머문 곳은

네모다’, ‘은수’, ‘ManaMana’팀이 우수상을 받고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상했다.

그 외 9개 팀에게는 한국광고홍보학회장·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이 수여되는 등 참가한 팀 전원에게 총 1천8백5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미래자원”이라며, “대학생들의 패기 넘치는 아이디어가 앞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번 공모전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뭄뿐 아니라 물 부족 사태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물 절약 습관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향후 이번 공모전과 같은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벌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연구·실험실 안전문화 정착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중심자, 대학생들의 상시 안전을 위해 ‘대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중앙대, 신라대(6.9-10), 울산대(6.11-12), 동국대(6.23-24), 숭실대(6.25-26), 고려대(6.29-30) 등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2일간씩 순회 개최되며, 해당 대학과 합동으로 사고사례 사진전 등 홍보물 배포, 가두캠페인 등이 실시된다.

선생님과 함께 ‘주경야독’

부천-시흥 학교도서관 사서직무 연수 개강식



◆ 부천교육청 학교도서관 사서 직무연수 개강식.

경기도부천교육청(교육장 권선우)은 지난 6월1일(월) 부천-시흥 초·중·고 희망신청 사서 및 교사 85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학교도서관 사서직무 연수'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사서 직무연수는 부천교육청과 시흥교육청의 공동 주관으로 기획됐으며 학교도서관 사서들에게 전문 직무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능력 신장을 꾀하고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활용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

됐다. 연수내용으로는 ▲ 독서교육론, 독서논술지도, 글쓰기 지도, 스토리텔링 등 ▲ 수료자격 80%이상 출석 및 100% 이상 과제를 제출한 연수자 수료증 수여 ▲ 독서논술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기회부여 등이다.

부천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단기성 연수가 아니라, 지

속적인 보수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지식제공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6월 1일(월)부터 7월23일(목)까지 총 45시간(매주 2회, 18:00-21:00)씩 15회 진행되며 6월은 부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7월은 시흥교육청 시청각실에서 실시된다.

2009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계절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순수학위취득자 5학기 조기졸업제 시행

1. 모집과정 : 석사학위 과정(교육학 석사)

2. 원서접수

가. 특별전형 : 2009년 5월 25일(월) ~ 2009년 5월 28일(목) 09:00 ~ 17:30
나. 일반전형 : 2009년 6월 22일(월) ~ 2009년 6월 26일(금) 09:00 ~ 17:30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4. 전형일시 및 장소

가. 특별전형 : 2009년 6월 13일(토)
나. 일반전형 : 2009년 7월 11일(토)

5. 특전

◆ 현직교원, 장학사(관), 연구사(관) : 등록금의 40% 특별장학금 지급

◆ 교원자격증(2급정교사이상) 소지자 : 등록금의 20%를 특별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자에게는 일반장학금을 지급

◆ 임용고시에 합격 한 경우 최고 100%까지 1학기동안 장학금 지급.(1차 합격자부터 지급)

◆ 교육실습 우수자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

◆ 임용고시 대비 무료 특강 및 인터넷강의 연중 실시

◆ 출석수업 기간 본교 기숙사 이용 가능